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전인’, ‘전인교육’ 이 가지는 함의(含意)

이태중*

요약

일반적으로 醫의 목적은 질병의 치유·예방이며, 그 목적이 실현된 상태, 즉 목표로서 ‘건강’을 상징한다. 특히 20세기를 풍미한 생의학 중심의 현대의학에서는 객관적 실체로서 질병을 개념화하여 진단과 치료의 토대로 삼고, 개념화된 질병의 부재 및 그 반대 개념으로 ‘건강’을 설정하고 있다. 하기에 현대의학에서 醫의 초점은 질병에 맞춰지고, 인체의 생물학적 정상상태인 건강이라는 고정된 지향점이 설정되고 추구된다.

하지만 현대 서양의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걸어 온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치유의 대상을 질병과 몸으로 국한시켜서 의학의 목적과 건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간 질병 중심의 현대의학(생의학 중심의)과는 달리 사람 중심의 의학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 실체로서의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구성하는 證候가 중요하고, 고정된 생물학적 정상상태로서의 건강이 아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음양의 역동적 조화를 이룬 ‘건강한 사람’이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관심 대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한 사람’을 ‘전인’으로 칭하며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지향으로 삼았다.

또한 ‘참 건강한 사람’인 ‘전인’이 되기 위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독특한 실천 전략이 있었으니 치유로서의 ‘敎’가 그것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처럼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敎’가 주요하게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가르침-배움의 관계를 통

* 한의사

해 醫의 대상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치유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목적으로서의 '전인' 과 특유의 실천 전략인 치유로서의 '敎' 는 현대의학의 비인간화와 몰개성화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 모색이 활기를 띠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범람하는 온갖 의학 상식과 건강 상품 속에서 건강은 개인의 의무이고 의료 상품의 구매력이며 현명한 소비의 결과로 전략해버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전인' 이라는 인문적 지향과 치유로서의 '敎' 라는 주요한 실천 전략의 주체적 복원과 현대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주제어: 질병, 건강, 의학, 전인, 교육

I. 서론

일반적으로 醫의 목적은 질병의 치유·예방이며, 그 목적이 실현된 상태, 즉 목표로서 '건강' 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건강·치유의 개념은 인류 역사와 함께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온 시대와 역사의 산물이다. 특히 20세기를 풍미한 생의학 중심의 현대의학에서는 객관적 실체로서 질병을 개념화하여 진단과 치료의 토대로 삼고, 개념화된 질병의 부재 및 그 반대 개념으로 '건강' 을 설정하고 있다. 하기에 현대 의학에서 醫의 초점은 질병에 맞춰지고, 인체의 생물학적 정상상태인 건강이라는 고정된 지향점이 설정되고 추구된다.

물론 지난 세기 이러한 생의학 중심의 개념이 질병·건강·치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개념은 일종의 시스템 모델로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육체적-정

신적-사회적 안녕 상태'이다. 최근에 여기에 영적 안녕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신체는 상호작용하는 육체, 정신, 사회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시스템이 조화롭게 안정을 이룰 때가 건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의학 중심의 현대의학과 같이 세계보건기구의 개념 역시 범위만 확대되었을 뿐 어떤 고정적인 정상상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건강은 생물학적 정상상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신적-사회적-영적 안녕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된 지향점으로서의 건강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있었으니, 미생물학자 르네 듀보의 생태적 시각인 《건강이라는 환상》과 프랑스의 철학자 조르주 칸길렘의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이 대표적이다. 르네 듀보는 인간의 고통의 근원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가 자리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결핵균을 결핵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소박한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생명체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다. 건강은 그러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균형일 뿐 어떤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

또한 조르주 칸길렘은 생리학과 병리학의 실증적 사례들과 연구사를 짚어가며 병리적인 것의 정의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그에 의하면 정상적인 것(건강)은 새로운 규범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어떠한 치유도 생물학적 순수성으로 환원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출현인 것이다. 결국 건강과 질병은 가치의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학의 차원이 아닌 철학의 문제로 환기된다.

이렇게 지난 세기 질병·건강·치유에 관한 다양한 담론과 논쟁들이 존재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현대 서양의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걸어 온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醫의 목적과 건강은 어떠

했는가? 그리고 醫의 목적·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주요한 실천 전략은 무엇이었나?

II. 본론

1. 건강은 없고, 건강한 사람은 있다

동아시아 전통의학은 치유의 대상을 질병과 몸으로 국한시켜서 의학의 목적과 건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간 질병 중심의 현대의학(생의학 중심의)과는 달리 사람 중심의 의학이라 할 수 있다. 즉, 醫의 초점이 질병이 아닌 사람에 있다. 객관적 실체로서의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구성하는 證候가 중요하고, 고정된 생물학적 정상상태로서의 건강이 아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음양의 역동적 조화를 이룬 ‘건강한 사람’이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관심 대상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醫는 군자가 이를 써서 생명을 보위하고, 그것을 미루어 세상을 구제하기 때문에 仁術이라 칭했으니, 의학의 목적을 고통 받는 인간과 세상의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완성으로까지 그 외연을 넓히고 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그 완성된(참 건강한 사람) 인간을 真人, 聖人, 君子 등으로 칭했는데,¹⁾ 동아시아에서 真人, 聖人, 君子 등은 그 자체로 완성된 인격체이자 건강체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구제하는 위대한 구원자이자 동시에 훌륭한 치유자였다.

1) 도가의 영향을 주로 받은 의학에서는 진인이라는 표현을, 유가의 영향을 주로 받은 의학에서는 성인, 군자 등의 표현을 썼는데, 그 의미상 큰 무리가 없을 듯하여 편의상 진인이란 용어로 통칭한다.

2. 건강한 사람을 찾아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목표, 지향점으로서의 '술人'

그렇다면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추구했던 건강한 사람인 술人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인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황제내경消拈²⁾』의 첫 편인 《상고천진론》에서 건강한 사람을 眞人, 至人, 聖人, 賢人으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결국 수양의 단계에 따른 구분일 뿐,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삶을 얻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황제가 말하길 “아주 오랜 옛날 참 사람(眞人)이 있어 자연을 다 알아 운용하였으며, 음양의 이치를 이해하여 精氣를 호흡하고 홀로 서서 神을 지키니 肌肉이 한결같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나이와 같이 살고, 시작도 끝도 없으니 이것은 진리가 사는 삶(道生)입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건강한 사람인 진인은 음양의 변화를 본받고 이를 따라 形과 神이 무너지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자로, 나아가 天地와 하나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인 것이다.

3.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나? 夫上古聖人之教下也

- 치유로서의 教,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주요한 실천 전략

2) 『황제내경』은 황제의 이름을 빌려 황제가 묻고 기백이 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대표적인 의학경전으로 소문과 영추 두 편으로 구성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소문은 우주의 본바탕/본바탕(素)에 대한 물음과 대답이라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인간의 완성과 영원한 삶으로까지 외연이 확대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다시 『황제내경·소문』 《상고천진론》에서 찾아본다.

무릇 上古의 聖人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모두가 다 이르되, 헛되고, 샷되고, 도적되고 바람 이런 것을 피하는 때가 있어야 되며, 마음을 편안히 하고 담담히 비우고 없애면 眞氣가 따르고 精과 神이 꼭 지키고 있으니 병이 어찌 오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聖人の ‘教’이다. 윗글은 『황제내경·소문』 《상고천진론》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절로 황제의 물음에 기백이 답하는 거의 첫 치유 방식이 바로 聖人이 펼치신 가르침(夫上古 聖人之教下也)이다. 즉, 가르침·교육을 통한 치유인 것이다. 실제 내경에서는 이러한 가르침·교육을 통한 치유라는 치유로서의 教를 즐기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럼 이 치유로서의 教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의학적 치료는 한 사람의 의사와 한 사람의 환자가 만나는 다분히 인간적 작업이며, 모든 의학은 그러한 특별한 관계에 의존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 醫의 초점이 질병이 아닌 사람에 맞춰진 동아시아 전통 의학에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³⁾ 에릭 J. 카셀의 표현처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유대는 교사와 학생의 유대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배우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모든 배움은 반

3) 그러하기에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의사-환자 사이의 관계를 논한 내용들을 흔히 볼 수 있으며, 특히 훌륭한 의사상에 대한 논의가 의학에서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드시 인간적 변화를 초래한다). 의사를 의미하는 영어 'doctor'는 가르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처럼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도 '敎'가 주요하게 존재해 왔으니, 이러한 가르침-배움의 관계를 통해 醫의 대상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치유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치유로서의 '敎'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주요한 실천 전략이라 하겠다.

4. 무엇을 가르쳤나?

《상고천진론》에서 이미 기백은 上古之人의 예를 들며 음식, 기거,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펼치고 있으며, 虛邪賊風을 때에 맞춰 피하고, 恬憺虛無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황제내경·소문』 두 번째 편인 《사기조신대론》에서는 첫 편인 《상고천진론》에서 언급한 '夫上古聖人之敎下也'의 좀 더 구체화된 전형을 밝히고 있다.

春三月은 묵은 것에서 새롭게 돌아나는 계절이니(發陳), 천지가 모두 살아나고 만물이 싱싱합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한가로이 뜰을 거닐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몸을 느긋하게 하여 마음에 무언가 자꾸 생겨나게 하여야 합니다. 살리되 죽이지 말며, 남에게 베풀되 빼앗지 말고, 상 주되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봄 기운에 상응하여 삶(生)을 기르는 도(道)입니다. … 故로 四時陰陽은 만물의 시작이자 끝이고, 삶·죽음의 근본입니다. 거스르면 재해가 生하고 순종하면 나쁜 병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를 일러 道를 얻었다(得道) 합니

다. 성인은 그대로 행하고, 어리석은 자는 배반합니다. 음양에 순종하면 生하고 거스르면 死하며, 순종하며 병이 낫다하더라도 다스릴 수 있고, 거스르면 병이 더 커집니다. 順한 것을 뒤집으면 逆이 되는데 이를 일러 內格이라 합니다.

이러한 四時陰陽에의 순응으로 대표되는 《사기조신대론》의 치유로서의 ‘敎’는 『내경』 이후 인간이 몸에서 주체를 실현하는 다양한 담론과 실천 전략들인 주거, 복식, 수면, 식이 등을 ‘양생’이라는 동아시아 전통의학 특유의 개념으로 통합·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여씨춘추·節喪》에서는 이 양생을 “知生也者, 不以害生, 養生之謂也”라고 하였으며, 고대로부터 調神, 養心, 怡神, 修性, 攝生, 道生, 衛生, 保生 등으로 불리어 왔고⁴⁾, 노년의 양생은 壽老, 壽親, 壽世, 養老 등으로 불리어 왔는데, 이는 생명을 보양한다는 의미이다⁵⁾.

5. 가르침의 궁극: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고, 도도로써 병을 치료한다

이렇듯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양생’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발전해 온 치유로서의 ‘敎’는 크게 육체와 관련된 가르침인 養形과 마음·정신과 관련된 가르침인 調神으로 나눌 수 있다. 養形은 음식, 기거, 방로 등을 절제하고 도인, 안교 등의 운동을 통하여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調神은 마음을 調養함으로써 질병을 치유, 예방하는

4) 김광호, 동의예방의학, 경희한의대 예방의학교실, 1995, p.61

5) 이남구, 양생에 관한 문헌 고찰, 대한원전외사학회지 Vol.8, 1995, p.46

양생의 이론 원칙과 방법이다. 이러한 養形과 調神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양생을 지칭하는 용어인 道生, 調神, 養性, 養心, 怡神 등에서 道, 神, 性, 心 등의 마음을 나타내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로부터 양생에 있어 마음의 양생에 중점을 두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양생의 정점에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고, 道道로써 병을 치료한다는 '治未病'과 '以道療病'이 있다.

일종의 예방의학이라 칭할 수 있는 이 治未病은 세간의 용렬한 의사가 아닌 聖人の 치료원칙으로 《사기조신대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인은 병이 날 때 다스리지 아니하고 병이 나지 아니할 때 다스리니, 난리가 이미 났을 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난리가 나기 전에 다스립니다. 무릇 병이 이미 생긴 뒤에 약을 먹고 난리가 이미 일고 난 뒤에 다스리려는 것은 비유컨대 목이 잔뜩 마른 때에 샘을 파려는 것이요, 싸움이 한창 일어났는데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늦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인께서는 治未病하신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治未病하는 것인가? 즉, 治未病하는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동의보감』 《내경편》에서 『활인심법』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 답을 속 시원하게 제시하고 있다.

구선이 이르길 “옛날의 신성한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미리 질병에 이르지 않게 하였는데 지금의 의사는 오로지 사람의 질병만 치료할 줄 알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줄은 모릅니다. 이는 근

본을 버리고 말단만 쫓고, 그 근원을 찾으려 하지 않고 겉가지만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 또한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비록 요행이 병이 나아도 이것은 곧 세속의 용렬한 의사가 하는 것이니 본받을만하지 못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태백진인은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거든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반드시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道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환자로 하여금 마음속의 의심과 걱정, 모든 헛된 생각과 모든 불평, 다른 사람과 나라고 하는 구분을 모두 버리고 평생 지은 잘못을 후회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문득 마음과 몸의 집착에서 벗어나 나의 삶과 자연의 법칙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오래 하면 神이 모여 자연스럽게 마음이 매우 편안해지고 성정이 화평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일이 공허하며 하루 종일 하는 일도 모두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나 자신의 육신도 모두 헛된 환상일 뿐이고, 화와 복이 따로 없으며 죽고 사는 것이 한낱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펼쳐 일어나 갑자기 모든 의문이 풀어져 곧 마음이 자연히 맑아지고 질병이 저절로 낫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은 이미 없어지는데, 이것이 참 사람(眞人)이 道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즉,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 만병의 근원은 하나이고, 마음에서 생기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기에 성인은 道로써 마음을 다스려 병을 치료한다는 以道療病을 치유의 大法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후대 이러한 성인의 치료 원칙인 治未病과 일종의 정신양생이라 할 수 있는 ‘以道療病’이라는 치유 방식은 동아시아에서 바람직한 의사상의 으뜸인 心醫라는 개념을 구성해 나간다.

6. 의사에도 등급이 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질병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고통 받는 인간 존재에 중심을 두고 양생이라는 가르침을 통한 독특한 치유 방식을 발전시켜온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醫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의사상에 대한 고민이다. 손사막의 《비급천금요방》 중 論大醫精誠이나, 이천의 《의학입문》 중 習醫規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올바른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인 동시에 윤리강령인 셈이다. 특히 조선조 세조의 『의약론(醫藥論)』은 의사를 여덟 유형으로 분류하여 올바른 의사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세조는 의학에 밝아 신하와 함께 의학에 관한 논의도 자주 했다. 그는 약을 쓸 때에도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인물로 자신의 의학관을 글로 표명했는데, 의약론이 바로 그것이다. 의약론에서 세조는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 의사에도 등급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의사를 심의(心醫)·식의(食醫)·약의(藥醫)·혼의(昏醫)·광의(狂醫)·망의(妄醫)·사의(詐醫)·살의(殺醫)로 구분하고 있으니, 우리가 드라마 허준 등을 통해 익히 들어온 심의(心醫)가 바로 여기 등장한다. 그리고 이 심의(心醫)는 환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로 위에서 언급한 치유로서의 '敎'의 궁극인 治未病·以道療病과 맞닿아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추구한 건강한 사람인 전인과 치유로서의 '敎'라는 동아시아 전통의학만의 독특한 실천 전략을 살펴보았다.

결국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목적으로서의 ‘전인’ 과 특유의 실천 전략인 치유로서의 ‘敎’는 현대의학의 비인간화와 몰 개성화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 모색이 활기를 띠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릭 J. 카셀의 표현처럼 “고통 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떨어진 의사를 위하여”, 범람하는 온갖 의학 상식과 건강 상품 속에서 건강은 개인의 의무이고 의료 상품의 구매력이며 현명한 소비의 결과로 전략해 버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전인’이라는 인문적 지향과 치유로서의 ‘敎’라는 주요한 실천 전략의 주체적 복원과 현대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The Meaning of the Whole Man and Education for the Whole Man in the East Asia Traditional Medicine

Lee Tae-jong

Abstract

Generally, the purpose of medicine is curing and preventing diseases and the aim, the state which this purpose has realized, is “health”. Especially in biomedicine-oriented modern medicine which overwhelmed in the twentieth century, disease was conceptualized as objective reality and became the basis for diagnosis and cure while “health” is set up as the absence of the conceptualized disease as well as the opposite concept. Therefore, medicine is focused on diseases in modern medicine and health, the biological normal state of human body, is set up as a fixed aim to pursuit.

However, the East Asia traditional medicine which have come along

its own way unlike the modern western medicine, is a human-oriented medicine, opposite to disease-oriented modern medicine(mainly focused on biomedicine), which limited the subject of cure to disease and body and went on making the purpose of medicine and the concept of health. The sign which consists the pain that a ill person has is important, not the disease as objective reality and the “healthy person” who has dynamically harmonized with yin-yang which follows the law of nature is the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s concern, not the health as the biological and fixed normal state. The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aimed for this “healthy person”, which was called “the whole man”.

Also, there was a unique practice in East Asia traditional medicine in order to become “the whole man”, a “very healthy person” ; “教” as cure.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a teacher and a student, “教” existed importantly in a doctor-patient relationship in East Asia traditional medicine, and through this teaching-learning relationship, the aim cure is achieved by changing the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medicine.

The “whole man”, the purpose in East Asia traditional medicine and “教”, a distinct practical strategy, give us many suggestions, when criticism and new counterproposal on dehumanization and depersonization of the modern medicine are active presently. Independent restoration and modern illumination on the “whole man” which supports the humanities and “教” as cure which is an important practical strategy of East Asia traditional medicine is necessary to the patients who are under existing conditions; a flood of all kinds of medical common knowledge and health products, with health being one’s duty, medical products’ purchasing power, and the result of wise consumption.

Key words: disease, health, medicine, the whole man, education

■ 성명: 이태중

주소: (320-120)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64-1 마음한의원

전화: 010-9597-9133

전자우편: dlxowhd@hanmail.net